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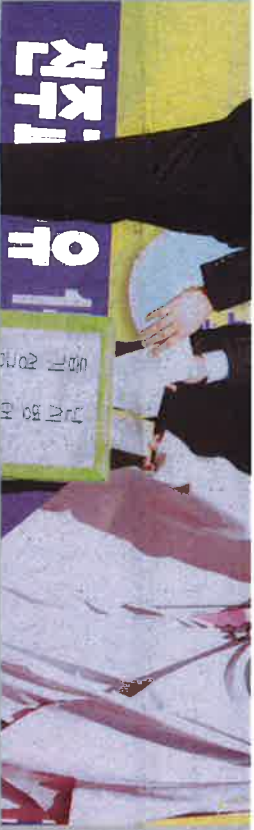
신 회장, 복지관장 및 지역 내 어르신과 주민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성북구의 표지와 홀루, 모범 어르신,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유공 구원과 어르신 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 요도성북을 위해 힘쓴 주민들을 표창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시간에는 축하공연과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발표가 이어졌다. 난타와 싹놀이, 창작무용, 통기타, 라인댄스, 태극권, 풍물 등 장르를 불문하고 어르신들은 그 간의 실력과 매력을 마음껏 뽐냈다.

김영배 구청장은 "제18회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에 앞서 '요도성북'의 주민인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뜻 깊은 하루를 선물하고자 주민들 모두와 함께하는 화합의 정을 마련했다"며, "특히 그동안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청춘의 마음으로



물이기 대학축제 부럽지 않은 열정적인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기양 주민신부(수유1동 성당), 김정은 담임목사(송림교회), 수임 주지스님(화계사)이 모금함에 모금액을 함께 넣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4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화계사, 송림교회, 수유1동 성당, 3개 종교기 공동 주최하는 '년처병 어린이돕기 종교연합 사랑의 대버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종교연합버저회는 수익금 전액을 난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전달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202명에게 총6억여 원의 성금이 전달됐으며 유열할 기지

“축” 시사프리신문 창간 8주년



“
안전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바로 뛰는 성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http://www.sbc.go.kr>